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 젠더 이슈와 교육적 함의

박선영*

〈국문초록〉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사회문제에는 가족관계와 기능, 빈곤, 심신건강 등과 함께 성차별과 불평등 문제가 공존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 젠더 이슈는 간과되었다. 특히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방법에 관한 기초교육에서 젠더를 배제한 접근은 사회복지사 전문가 직업개발과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에서 젠더에 무감각하게 실천하게 하여 전문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현재 사회복지실천과 여성, 그리고 교육에서 젠더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젠더 통합적인 사회복지실천 교육의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교육,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젠더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개인 간의 다양한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중 하나인 성¹⁾은 생물학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개인 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람들은 일상의 대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을 구분하는 일차적 잣대로서 성을 구별하고 대화에서도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등 젠더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실천되며 우리가 참여하는 사회현상을 구성하고 또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변인으로 기능한다(조혜자, 2002). 젠더는 인간과 환경간의 교류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간 사회복지실천 교육에서는 사회문화적 성의 이슈인 젠더를 간과해왔다(Tice, 1990; Shriver, 2004).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기본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여성이고 또 많은 사회복지 전공생들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여성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 젠더 이슈는 사회복지실천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같은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기본 실천과정을 교육하는 필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젠더는 교재의 편저자의 시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간 발달에 대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개념적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되는 사례에서는 성별 역할이나 관계는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문화권 하에서 젠더화된 양식이 녹아들어 설명되는 경향이다. 젠더가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라는 분야론으로 국한되어 교육되는 현상은 젠더를 사회복지실천의 통합된 이슈로 고려하기 보다는 특별 대상에 대한 서비스로 분류하여 “여성, ‘그들만’의 일”로 다루도록 하고 사회복지 일반

1) 사회복지실천에서 남녀 간 정서, 인지, 행동의 유사점과 차이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고 구성되는 성(gender) 등 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드물게 이루어졌다.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사회화된 성역할과 사회기능에서 젠더 개념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실천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여기서는 ‘젠더’로 표기한다(강이수, 2006).

이 아닌 열외의 주변적 이슈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특성으로서 여성과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성의 이슈를 다루는 젠더연구의 축적된 연구역량에 비해 사회복지실천에서 젠더에 대한 의식은 저조하다. 어느 분야보다 서비스 수혜자로서와 제공자 양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지대한 사회복지실천의 교육과 훈련에서 젠더 이슈를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 배경과 대안적 접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교육에서 젠더를 간과하는 교육방식은 사회복지 전공생 자신들의 개인적 자아 형성부터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자아(professional self) 형성의 밑바탕을 이루는 젠더에 대한 의식을 약화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발전시킨 어머니격인(founding mothers) 여성 활동가들은 모성주의(maternalism)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을 발전시켜왔고, 현재 다변화하고 다문화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클라이언트가 여성이며 사회복지사의 보호(caring)하는 기능이 강조되므로 직업적 특성으로나 일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서 젠더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두된다(Abrams & Curran, 2004). 대학은 고등교육을 통해 계층에 따른 차이와 차별 뿐 아니라 그 사회체제가 이루어 온 구별과 차별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한편 기존 관습과 편견, 차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이자 기관이므로(Bourdieu, 2001; Anastas, 2007: 238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에서 젠더와 관련하여 지식과 기술을 변화시키고 젠더에 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젠더 변수를 간과한 사회복지실천 교육은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부가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의식 수준을 약화하여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 삶의 곳곳에 내재된 젠더 이슈에 대한 기능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정채기, 2006). 이러한 장애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발달과 일상생활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젠더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불합리하게 기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순응하여 여성 사회복지사와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상대적인 비교 하위를 차지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Anastas,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록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맥락에서 젠더 이슈와 교육의 매체인 필수 교과에서 반영되는 젠더에 대한 내용의 현황을 알아보고, 젠더 통합적인 사회복지실천교육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현장 참여자의 대다수인 여성들 뿐 아니라 남성들이 자신과 클라이언트의 대인 및 사회기능의 기본이 되는 젠더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남녀의 관계적 맥락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도우며,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 기반의 재구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2.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실천교육과 젠더

1) 사회복지실천과 여성

(1) 사회복지실천 역사에서 젠더 논의

사회복지제도나 서비스 전달 그리고 정책에서 사회문화적인 성 즉 젠더(gender)를 고려함은 곧 성평등과 여성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강이수, 2005; 이해경, 2006). 성별 차이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중심적 가치와 행동이 지배적이고 당연지사로 여겨

지던 20세기와 달리 이제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인식된다(한국여성학 연구소 교재편찬위원회, 2005).

사회복지실천에서 성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접근은 남성주도적인 분야나 직업군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직업으로의 발전은 여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의 속성이 여성적 자질을 필요로 한다는 기초 배경에서 차이가 난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여성참여가 지대했고 여성적인 업무 속성이 강한 실정에서 휴먼서비스직으로 발전하는 중에 젠더 인식과 통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점이다.

직업적 역사의 초기부터 사회복지실천은 여성과 밀접히 관련된다. 이 관련성은 세 가지 차원, 즉 사회복지 직업의 전문가주의, 사회복지사의 모성주의(maternalism), 그리고 인종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Abrams & Curran, 2004). 직업의 전문화 및 전문가주의는 19세기 말부터 여성 자선가들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노력에서 나타나고, 현재에도 사회복지 입문생들의 관심 주제이며 학회 및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나 전문가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대두된다. 모성주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사회복지실천의 기반과 사회복지 개정(reform)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제인 아담스(Jane Addams)나 애벗 자매들(Grace and Edith Abbott)과 같은 여성들의 영향에서 뿐 아니라(Lubove, 1965; Munch, 1991; Gordon, 1994) 이타적 성향을 기초로 타인을 돌보는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속성을 반영하고, 돌봄과 장기적 돌봄이 동반할 수 있는 의존성(dependency)을 조장하는 데 따른 논쟁의 주제로서 현재적 의미도 갖는다. 인종관계는 서구에서 역사적으로 훨씬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다문화 현상이 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다문화 이슈'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여성

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실천이 개입하는 문화교육과 자녀양육에서 사회복지사가 가부장적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한국의, 그리고 중산층의 양육과 가족기능의 방식을 교육한다면 19세기 말 미국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단이 수행한 활동과 유사한 실천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 여성의 양육방식과 교육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결정의 원칙도 위배하게 된다(Muncy, 1991; Scourfield, 2006).

요컨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 직업의 역사에 주요한 주제인 전문기주의, 모성주의, 문화적 이슈들에 여성이 주역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에 무감각하고 교육 내용에 젠더 논의가 부재한 현상은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현황과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사 자격과 성별 분포의 현황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실천 발달의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근간인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역들이 여성이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복지실천과 당시 사회복지의 진보적 행보에 적극 기여하였다. 사회복지사들 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1920년 대 조사에서 사회복지사의(당시는 전문적 사회사업가[professional social worker]) 2/3였고, 2001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회원들의 79%가 여성으로 나타난다(Abrams & Curran, 2004, p.430, 재인용).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여성의 높은 참여율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 중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86년 53.9%에서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전체의 73.8%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내 사회복지실천의 여성 주도적 현상이 역사적으로 현재 까지 지속되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혹은 적어도 직업적 관심도의 성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전반적인 취업구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과 실천 업무의 특성이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젠더 이슈가 클라이언트의 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신들의 업무체계와 급여 및 복지 처우 등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Anastas, 2007).

사회복지실천과 여성의 밀접한 관련성이 시사하는 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타인의 안녕에 대한 염려와 돌봄(caring)의 노동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직업적 성격이 여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성주의(maternalism)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그 태생부터 이타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20세기 초반 여성 사회복지사가 여러 클라이언트군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여성 클라이언트에 대해, 배우자와 어머니로서의 정체감과 역할, 도덕성 등에 대해 젠더 편향적인 중산층 가치와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개입한 경향이였다(Muncy, 1991). 현재 이러한 모성주의적 실천은 사회복지사의 이타성, 돌봄, 배려와 헌신을 기대하는 사회적 시선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을 해 주는’ 혹은 ‘-를 위해 -을 대신 해주는’ 식의 사고와 행동방식에서 그 잔재를 엿볼 수 있다. 모성주의적 실천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조장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모성에 기반한 정서와 노동력을 남용하고 직업적 소진을 (burn out) 야기할 수 있으며, 현대의 전문직으로 확립되고자 하는 직업적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모성주의와 관련하여 젠더 이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능하여 사적인 차원의 자선, 헌신, 희생을 바라는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서비스 차원의 공적 지지체계로서 사회복지실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일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여성의 지배적으로 높은 참여율은 또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성주의와 결합하여 남성 사회복지사에 비해 여성 사회복지사의 희소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성별 업무 방식과 서비스 전달과정 및 결과의 남녀 간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지만, 남성 가장에 대한 사회 전반적 가치가 우위를 차지하고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임금체계와 함께 가족 양육과 보호의 책무가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병행하여 부가되어 여느 직장 여성과는 또 다른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여성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비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기관 및 시설에서 남녀 사회복지사 비율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남성 비율이 높²⁾ 여성 사회복지사가 승진이나 직업 개발(career development)에 취약하고, 진급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 있다(Anastas, 2007).

셋째, 사회복지직의 모성주의적 속성이 잔재하는 가운데 남성 사회복지사의 증가는 일면 사회복지실천 분야야말로 남녀 성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누구나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 젠더 편향적인 직업의식을 수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느 전문직과 달리 여성 지배적으로 시작하였으나 휴먼 서비스직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현재 전반적인 청년취업난과 업무상의 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점차 의료나 법률 분야의 전문직

2) 대구지역 사회복지기관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의 대답에 기초한다. 2008. 12. 2

처럼 남성 우위의 직업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젠더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사회복지실천 교육을 젠더 통합적으로 수정한다면 오히려 균형잡힌 젠더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및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젠더 편향과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한 실천을 그대로 해 가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간 실천과 사회복지직 내부의 취약성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젠더 중립적으로(gender-free)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은 결코 가치중립적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무감각한 성맹적(gender-blind)인 처사이다(이혜경, 2006).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각기 인간으로서의 기능에서 성 정체감과 성역할 기능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한다면 젠더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이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연구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혹은 가치 편향되게 오도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 일찍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었으나(이혜경, 2006; 이혜경, 홍승아, 2003),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내용에서는 특별히 페미니스트 관점을 내세우는 경우(예: Bricker-Jenkins, Hooyman, & Gottlieb, 1991) 외에 통합적 관점에서 젠더이슈를 포함하는 접근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젠더에 대한 의식의 위약성이 유사하고, 사회복지실천교육에서 젠더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가 최근에 제기되는 실정이어서, 나라를 막론하고 성인지적인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젠더이슈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감과 전문성을 공고

히 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기반을 학습 및 훈련하여 전수한다. 일찍이 1915년에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 2001)가 사회복지에는 훈련하여 전수할 지식과 기술 기반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였고, 사회학자 애보트(Abott, 1988)가 사회복지사는 자원을 연결하는 기능만 하므로 간전문직 (paraprofessional) 수준에 머문다고 간략히 지적하여 전문직화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현재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처우를 개선하여 휴먼서비스 전문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가치와 윤리강령, 지식과 기술 기반, 전문가 문화, 사회적 인가 등 전문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Greenwood, 1957), 앞서 언급한 바,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양성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 문화에서 젠더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강령, 지식과 기술 기반에서 사람에 관한 중요한 이슈인 젠더를 인식하고 이들 요인들에 통합하여 교육기반을 확립하여 전문가 문화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교육에서 ‘여성주의적’ 혹은 ‘페미니스트’ 관점이나 접근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 않고 통합적 차원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교육 내용은 부재하다. 예를 들면, 인간발달을 조망하는 데서 성차와 젠더 이슈라던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차와 젠더 이슈 등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필수이자 기초가 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환경 속의 인간 발달 및 행동,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방법을 교수하는 주요 과목들의 내용은 성차로 인한 문제제기나 대안적 시각이 부재한 채 교육되는 실정이다. 젠더가 고려된 곳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특별히 비판적 사고를 중시한 경우나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특별히 면대면 직접 서비

스에서 성차와 인종과 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한 일부 교재 (Cournoyer, 2000; Gibbs, & Grambrill, 1996)에서만 나타난다.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교육의 부재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인간발달 이론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실천 기술론의 이론들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연구자의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의 위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은 성차와 젠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축적해 온 여성학과 학제 간 소통에 소홀해왔고, ‘여성주의=급진주의’라는 도식에 기반하여 기존 가부장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접근에 저항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저항감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권한이 돌아가게 되는데 대한 불편함과 우려, 위협감 등도 포함될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뇌과학이나 도덕, 조직, 사회 등 제 기능에서 남녀 차이를 비롯한 경험적 지식의 습득과 젠더를 생활 속의 이슈 중 하나로 수용하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안에서 인식개선 및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과 성차 및 젠더 변수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섭렵하여 기존 사회복지교재 내용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 여성과 남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별 차이로 겪는 차별적 이슈들을 의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며,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과 비교·고찰하여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데 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사회학습을 세대전이 시키는 제도화된 젠더 무감각성에 대

한 인식과 성인지적 통찰이 필요하다.

3.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교육 내용의 검토

사회복지실천 교육에서 젠더를 수용하여 통합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입문으로서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적 조망, 심리사회적 기능의 이해를 위한 성격이론,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과 방법 등이 젠더에 민감하게, 성인지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이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생물·물리적 차이를 중심으로 젠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복지실천이 관여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통합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조혜자, 2002). 나아가 개인이 신체·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지지체계와 심리적, 물리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서비스 전달과정과 체계 역시 젠더화된 사회적 산물임을 직시하는 것이 요구된다(Scourfield, 2006). 예를 들어, 남성들이 도구적 지지를 중시하고 결과중심적인 행동 경향이 강하고 여성들은 과정과 관계 지향적인 특성은 성인기 개별화(individuation)를 이루는 과정이 다르고 또한 지역마다 남녀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반응이 다르고 사회복지사 역시 그러한 지역의 이해에 따라 남녀 클라이언트에 반응하게 된다(Scourfield, 2006). 또한 성인 남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여성은 순환계 질환에 대해 취약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의료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형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Hyde, 2003). 따라서 다양한 생물·심리·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남녀 클라이언트가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된 일상의 사적, 공적 환경 속에서 보다 잘 기능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사회적 산물로써 젠더화되어 전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실천 교육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이자 기초 과목으로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최근판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의 교과목 지침(2004)에 수록된 참고 교재들을 중심으로 예비적인(preliminary)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교육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는 차후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

1) 사회복지실천 방법 및 기술에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지침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심리사회적 기능의 강화와 적응적인 환경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관점은 개인이 타인, 가족, 집단, 사회 전체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꾀하도록 하여 유용하다. 사회복지실천이 여타 휴먼서비스직과 같이 개인이나 환경 어느 한 체계의 내부나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둘 간의 교류 지점에 개입하도록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 개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개 개인의 심신건강,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예. 이사, 군 입대, 자녀의 결혼, 이혼, 별거, 등), 사회경제적 위기와 빈곤을 포함한 자원의 결핍,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지만 젠더 이슈는 배제된다.

‘환경 속의 인간’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초 핵심 과목인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과에서 생태체계이론에 포함되어 개인이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 여러 체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교과에서도 역시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사회복지실천 개입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대개 경제적 곤란과 심신 장애로 대표되고 성차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포함한 젠더 이슈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기술에 대한 교육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라는 큰 대상에 대해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실제에 적용할 핵심 과정과 방법의 틀을 제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교과 내용의 서술에서 대명사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표기되고 관련되는 사람들도 가족, 집단, 지역사회, 사회 환경, 체계 등의 기술적 용어로 지칭되어 인간적 특성은 배제된다.

이러한 이론화된 교재 내용은 사회복지실천의 공통 이론과 기술 기반이 형성되어 감을 나타내어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개입 모델의 제시에서 젠더는 다루어지지 않고, 과거 서구의 심리치료에서의 경향과 유사하게, 가부장적 가치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여성을 함의하는 클라이언트의 사례에서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이나 분노를 받아 괴로워하거나 혹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여성으로 보고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또한 흔히 이용되는 미혼모 사례의 경우 미혼부 보다는 소녀인 모(母)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서의 문제와 출생할 아동의 입양문제, 그리고 미혼모인 소녀가 양육할 경우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집중하여 서술된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여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향된 묘사는 과거 정신역동치료를 비롯하여 말로 하는 심리치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번히 내방하여 히스테리로 인한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을 나타내

고(실제 DSM 기준에서 남성이 더 빈번히 히스테리성 증상을 나타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답습하는 경향이다. 이는 심리치료 현장과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 군(clientel) 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두 휴먼서비스직의 차별성을 무시한 사례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심리치료의 빈번한 내방자의 프로파일을 보면, 중산층 이상의 말하기를 좋아하거나 언어구사력이 좋으며 교육수준이 상당한 젊은이들인 반면, 사회복지실천 클라이언트의 프로파일 현황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은 계층, 심신건강과 자산여건 상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가정 내 폭력, 학교와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에 더 취약하고 따라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더 빈번히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g, Kam, Ai-Girl, & Tow, 2004.; Galdas, Cheater, & Marshall, 2006).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여성 클라이언트 대개는 저소득계층으로서 일상생활의 유지가 보다 시급하므로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보다 중요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나 배우자와의 관계 등은 열외의 이슈일 수도 있지만 심신건강과 자원의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그 어려움이 더 크게 경험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심신 건강, 가족 관계 간의 갈등과 기능, 가계 및 불충분한 생활 자원, 자녀양육과 교육 등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한 그리고 상이한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여성의 인지, 정서, 행동양식, 남성과 구분되는 억압적인 생활상황 등에 민감한 실천과정과 방법이 더욱 강조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사례서술에서 병리적이거나 문제를 경험하는 여성 클라이언트 중심의 묘사는 저소득계층 여성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역기능 중심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성인지적 부연설명을 첨

부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인간발달에 대한 접근

교재가 사용하는 개인 및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은 가부장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연구자들이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개발한 이론에 기초한다.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 '인간=남성'이 함의되거나 '인간,' '아동,' '아동과 양육자' 등의 성차와 젠더의 구체성을 내포하지 않는 대명사가 사용된다.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실천 과정 및 방법이 젠더 중립적으로 서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발달에 있어 성별 차이가 빚어내는 장애나 사회적 불이익은 위험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발달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친족,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은 성차와 관련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데 관련되므로 중요한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 내용이 젠더에 무감각하게 서술되거나 젠더 이슈가 간과되므로 우려를 낳게 된다.

인간발달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간보편적인 과정,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및 환경적 요인, 신체, 인지, 정신적, 사회적 기능,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생물학적 성차는 서술되지만 사회적인 성 편향 및 차별, 서비스 이용에서 젠더 이슈가 심리사회적 기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논의는 배제된다. 이는 해부학적 차이가 신체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만으로 논의를 그쳐, 그 이상의 사회문화적 젠더 이슈로 인한 개인의 경험이 사회정의의 이슈로 정치화하는 것은 간과하게 한다. 청년기 발달 과업으로서 직업 선택과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에서 사회적 기대와 그에 부응하는 남녀행동의 차이, 정체감 형성에서 성차와 그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논거 역시 부족하다. 사회문화적 환경 자체가 성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즉 젠더화된 현실에서 젠더를 초월한 듯한 혹은 젠더 중립적인 접근은 학생을 포함한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Carter, 1994).

개인의 발달에 대한 서술은 인간 보편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취지 하에 성별 구분과 젠더에 대한 의식 없이 이루어지므로 남성 연구자에 의해 젠더 편향적으로 관찰된 남성 중심의 내용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골근육 및 성적 발달을 포함하여 신체 발달에서의 성차 그리고 아동기와 청년기에 걸친 성역할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만 그러한 성역할을 구성하고 기대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의 기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성격 중 남아의 공격성에 대해 남자 인간의 공통적 현상으로 간주하기 쉬운데, 실상은 문화인류학적으로, 타이(Thailand)와 같이 공격이라는 감정과 행동이 문화적으로 아예 부재한 곳이 있는가 하면 미국 중남부 지역과 같이 지역적으로 남성의 공격성이 조장되는 곳도 있으므로 남성 발달에서 공격행위를 문화적 구성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과 가족의 발달에서도 부부, 자녀, 노년기의 손자녀 돌보기 등을 규범적인 생애주기로 상정하거나 청소년 발달에서도 또한 흔히 문제로 제기되는 미혼모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와 열등 처우에 비판적이기 보다는 여성 단일의 과업을 주로 서술한다. 미혼부의 이슈는 제기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처리되고 기존 가부장적 가치에 의해 보호받는 결과를 낳으며, 임신으로 인해 미혼의 여성이 지게 되는 부담과 낙인, 경력개발 등에서의 피해 등 억압적 요인은 외면되는 경향이다. 이는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직업개발과 가계 책임 부담 등을 남성 생애주기적 발달 상 의무적 과업으로 당연시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차원의 문제이다.

젠더 무감각한 현상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등에서도 제기된다. 이들은 20세기 초부터 세기 말 전까지의 서구 사회에서 학습된 남성중심적 인간관에 젖어 있던 연구자들이고 이후 이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실천 교육에서 인간발달과 성격에 대한 이론화를 위해 이들 이론들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연구자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산물인 점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들 연구자의 이론의 원천이 되는 자료의 성별 비율도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연구자의 발달 설은 연구자들의 제한된 시각과 자료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이론적 접근이므로 인간 보편적인 당위적 발달인 듯이 교육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은 길리건 (Gilligan, 1982)의 비판과 대안적 접근과 같이 비교학적 맥락에서 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한 반부패의식 조사에서 여아의 의식수준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최현준, 2008)와 같이 일반적 차원에서 회자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만 보아도 성차가 제시되므로 발달상의 젠더요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지식으로서 인간발달에서 신체와 심리적 체계의 성숙을 통해 환경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대처 기능을 개발하는 기본 구조와 기능적 발달은 인간 보편적이지만 유아기부터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나'와 친밀한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남녀 차이가 있고 젠더 이슈는 사회복지서비스 활용과 자신의 생애 및 사회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므로(Figueira-McDonough, Netting, & Nichols-Casebolt, 2001; Hyde, 2003) 젠더에 민감하게 경험적 차이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성별 차이에 조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젠더 의식과 다양한 요인들에 대

한 인식있는 교수법의 개입 없이는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이들 연구자들이 시대의 산물로서 사회화된 혹은 성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지식과 개인적,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수받은 선입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후세대에게 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성격이론에 대한 접근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에서 성격이론은 개인의 사회환경과의 교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포함되는데 그 내용의 서술 상 ‘인간’ 혹은 개인, 아동 등의 주어를 통해 성별 구분이 없지만 남아중심적인 이론을 인간 보편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달된다. 이는 어린 시기부터 남녀 아동에게 옷 색깔, 장난감, 놀이 방식과 양육자의 대화와 행동에서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영향이 미치는 효과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남성들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고등교육의 역사와 고전적인 성격이론의 대표적 연구자로 꼽히는 사람들 중 남성들이 많고 이들이 자신의 양육자와의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발전시켰다는(이인정, 최해경, 2002) 연구자 효과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육자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성격의 이론가로 대표적인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의 경우 각각 가족 내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바를 이론에 반영하였다(이무석, 2006; Norman & Wheeler, 1996). 특히 프로이트는 아동기 인간발달에 서양문명의 근원으로서 그리이스 신화를 적용하였으며 유대문화와 그리이스 신화에서 남아중심 사고도 함께 투영된다. 특히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통한 여아의 발달보다는 오이디푸스 콤플

렉스를 활용한 남아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대한 이론 개발에 치중한 점과 남성성의 강조는 익히 알려져 있다. 에릭슨의 경우 아동기 발달에서 가부장제의 영향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고 미국 인디언 소년과 소녀 그리고 인도와 독일의 위인 등을 연구하여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친 심리사회적 그리고 역사문화적인 영향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Erikson, 1963, 1968). 그러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나타내는 남아 중심적 경향과 개인의 역사문화적 발달에 관해 마르틴 루터 킹, 간디 등 남자 위인을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 자신이 동일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연구자의 한계도 엿볼 수 있다.

연구자 자신과 동성의 연구 자료에 한정됨을 인식한 인본주의적 이론가로는 레빈슨(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을 들 수 있다. 그는 애초에는 남성중심적으로 'human=man'의 시각에서 개인 생애발달을 네 단계로 구분하여 사계절에 비유하였고('the seasons of a man's life'), 이후 여성들이 가정, 교육, 직장, 사회적으로 상이한 상황에 처하여 여러 면으로 제한된 환경적 조건 속에서 힘든 발달경험을 하는 것을 깨닫고 여성 인생의 사계론('the seasons of a woman's life')을 시도하였다(Levinson & Levinson, 1996). 아들러의 경우 여형제들 사이에서 남아가 경험할 수 있는 소외와 여성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어 당시 이론가들의 남성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에 대해 여성성이라는 '외적' 요인을 위협적인 것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이론이 남성중심적임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이인정·최해경, 2005).

이들 성격이론은 사회복지실천의 기초 지식과 기술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이 아니라는 도전을 받던 시기에 인간과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을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세기 초반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성격이론이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각광을 받았고, 이는 정신역동이론이 서구 사회 및 인문 과학에서 거대이론으로 간주되는 만큼 타당한 대우였으나 사회복지실천 내부적으로는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이슈를 간과하고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제기하게 한 이론이기도 하다. 이후 신프로이트 학파를 비롯하여 환경을 좀 더 고려한 성격이론들은 심리역동적인 한계를 벗어나 심리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와 과업)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실천에 유의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Newman & Newman, 1984; 이인정·최해경, 2005).

한편, 서구 일부 문화권의 한정된 연구자들이 개발한 성격이론을 인간 보편적 현상으로 수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돕는 데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이론들은 서구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관찰된 현상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상이한 문화권의 다양한 인간행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지의 지식(local knowledge)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성격의 이론들이 마치 동일한 인간 종(human species)으로서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서술됨은 사회복지실천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생물·심리·사회·경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이들 서구 이론들을 거대이론으로 혹은 상이한 문화권에서 무조건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서구와 미국의 지역적인 한계를 내포하는 개념과 이론으로 이해하고 대안적 접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성인지적 사회복지실천교육을 위한 대안적 논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교과목 내용은 성차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위치와 입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전개되고, 사회복지실천의 사례에서 개입 모델과 구체적 실천 기술에서도 젠더에 대한 논의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에서 일찍이 1970년대에 문제제기가 되었고, 1992년에 사회복지 교육 교재에서 젠더이슈가 간과되거나 여성 클라이언트 묘사에서는 편향되게 나타남이 지적되었고(Graham, 1992), 이후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지만 아직 교육에서 젠더의 통합 논의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젠더이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방법에서 성차 및 젠더의 배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과정과 방법을 개념화하는 데 젠더를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포함해야 한다면 그 당위성에 관한 의문을 동반한다. 관련하여, 젠더를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변수들과 동급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환경 속의 인간)G(젠더이슈)라는 인식 하에 보통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차별화하여 '개별화된 사람됨'에 필수적 요인으로서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젠더는 계층을 포함하여 여느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달리 개인의 사회적 사람됨에 융해되어 나타나고 사회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누구나 사회적 성, 즉 젠더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실천하게 된다(조혜자, 2002). 사회의 제 현상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도움의 과정이자 성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속성을 직시한다면 젠더 요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에 무감각한 성맹적인(gender-blind) 태도가 곧 가치중립적 자세는 아니고, 오히려 남성 중심의 기존 사회체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만들 경우 여성의 위치를 평가절하하고 남녀 차이와 관계의 역동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Grise-Owens, 2002) 젠더 통합적인 교육내용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이론을 구축하는 작업에서 개념적 이론의 제시와 구체성을 통한 이해를 돕는 측면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조혜자, 2002; Figueira-McDonough, Netting, & Nichols-Casebolt, 2001). 이는 첫 번째 이슈와 연관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실천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작용에 대한 지침을 개념화하는 데에 생물학적이고 사회인구학적인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을 관련시키지 않은 채 개념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부분과 실천학문으로서 사회적인 제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생활 상황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할 때 이들 영향요인들을 통합하여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보충 설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례의 서술과 개입모델의 기법을 설명함에 있어 남녀 역할을 이분화하거나 각 입장이 평등하게 서술되지 못하는데다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을 취약하게 하는 경향을 직시하고 비판적인 부연 설명 그리고 수정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차와 젠더 이슈를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에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구자와 교육자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여타 학문 분과도 그러한 경향이지만, 사회복지실천은 서구에서 개발된 직업 분야이자 응용연구 분야 만큼 실천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교과내용을 서구의 사회복지교육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 및 교육자의 시각이 서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익숙하여 사회화되었으므로 성차에 대해 둔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중된다. 따라서 서구의 사회복지실천이 젠더에 무감각해 온 실정을 답습하는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개별 교육자와 연구자 요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협회가 젠더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교육지침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협회는 사회복지실천 이 전문직으로 확립되는 데 중요한 기구이므로, 현행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가 사회복지실천 교육의 질과 내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다문화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성차 및 젠더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공식적 지침의 개발과 교육 내용의 수정작업, 그리고 교육자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 전공생 및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방법을 도구로 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지, 정서, 행동양식에 개입된 젠더이슈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방법이 젠더화되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현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남성중심으로 성차별적으로 해석되고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젠더에 의해 층화된(gender stratified) 사회구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남녀 모두의 경험을 공히 반영하기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조혜자, 2002; Figueira-McDonough, Netting, & Nichols-Casebolt, 2001).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사회구성적 측면은 클라이언트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차에 따라 개인, 가족, 집단 내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이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심리·사회·물리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과 용이성, 실현가능성 등도 성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울감을 표현하는 빈도가 다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다르며, 여성의 조용함과 우울함에 대한 사회적 허용은 여성이 우울증에 보다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 높은 역학적 비율을 낳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행위(help-seeking behavior) 역시 여성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Fujita, Diener, & Sandvik, 1991; Norman & Wheeler, 1996). 또한 사회복지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회지지도도 젠더변인이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천에서 성인지적인 개입이 요구된다(Pines & Zaidman, 2003).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 자체가 성별로 다르게 경험되고 여타 계층과 교육 기회의 차이 등 사회적 자원의 성차별적으로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실천에서 젠더에 무감각한 인간행동의 이해와 환경에 대한 개입은 의도치 않은 젠더 편향적인 불균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책임성을 인식하고 재분배의 논리를 세우는데 젠더를 고려한 통합적 교과내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정서, 인지, 행동 상의 남녀 차이와 사회문화적 기대로 인한 사회학습적인 결과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가고 있지만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서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간주되어 정해진 교육내용이 고정적으로 전달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신과 클라이언트 모두 참여하여 형성하고 있는 젠더화된 사회 구조 내에서 기존 인간행동과 환경에 대한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론의 적절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의문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젠더이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교육 내용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학제적인 지식과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한 개방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자들이 경제나 사회학, 행정학, 사회정책 분야 등과 교류하는 것에 비해 실천 분야에서는 성격이나 인간행동에 대한 심리학 이론을 대거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학이나 문화심리학 분야, 그리고 최근 여성심리와 남성심리학 분야와의 소통에는 덜 개방적이다. 다학제적 소통과 최근 지식과 정보의 도입은 현행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의 수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자의 시각의 변화에도 필수적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이 전문분야로 공고하게 확립되고 사회복지사의 정체감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실천의 '지식에 대한 지식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이론, 모델, 개념 등의 개념화부터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

한 교육을 통해 인간행동과 발달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이론의 현지 지식(local knowledge)으로서의 위치에 대해 고찰하고 취사선택하여 우리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히 응용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제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수정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자의 비판 능력의 고양은 현행 교재들에서 서구의 인간행동 이론을 문화 초월적으로 차용하고 적용하는 데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고, 이론의 소개와 적용에서의 한계 그리고 대안적 접근의 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젠더 통합적 내용으로의 수정을 촉구하는 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접수: 2008. 10. 30. 게재확정: 2008. 12. 8)

참고문헌

- 강이수(2005), “여성학이란 무엇인가”, 『새여성학 강의』 (개정판), pp.13-33, 서울: 동녘.
- 권중돈·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김기태 외(2002),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양서원.
- 김용일·조홍식·김연옥(2000),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 양옥경 외(2001),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 엄명용 외(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엄명용·노충래·김용석(2008)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무석(2006),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 이인정·최해경(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이혜경 외(2006) 『한국젠더정치와 여성정책』, pp.365-399, 서울: 나남출판.
- 이혜경·홍승아(2003), “성통합적 복지국가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사회보장연구』, 19(1), pp.161-189.
- 정채기(2006), “젠더연구(gender studies)의 교과 과정화에 대한 연구: 남성학과 여성학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육논단』, 5(1), pp.117-141.
- 조혜자(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심리의 이론과 실제』, 철학과 현실사.
- 최옥채(2006),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양서원.
- 최현준, 『한겨레』 2008. 11. 8.일자 사회면: 한국 청소년 윤리의식 아시아 4개국 중 ‘꼴찌’.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004),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서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Abbott, A.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rams, L. S. and Curran, L.(2004), “Between Women: Gender and Social Work in Historical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78(3), pp.429-446.
- Anastas, J. W.(2007), “Theorizing (In)Equity for Women in Social Work”, *Affilia: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22(3), pp.235-239.
- Ang, R. P., Kam, M. L., Ai-Girl, T., & Tow, Y. Y. (2004), “Effects of Gender and Sex Role Orientation on Help-Seeking Attitudes”, *Current Psychology*, 23(3), pp.203-214.
- Bricker-Jenkins, M., Hooyman, N., & Gottlieb, N. (1991), *Feminist Social Work Practice in Clinical Settings*, Newbury Park, CA:

Sage.

- Carter, C. et al. (1994), "Integrating Women's Issues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Proposal",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2), pp.200-216.
- Cournoyer, B.(2000) *The Social Work Skills Workbook*(3rd ed.), Belmont, CA: Brooks/Cole, 『사회복지 실천기술연습』, 김인숙 · 김용석 옮김. 서울: 나눔출판. 2001.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W. W. Norton.
- _____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igueira-McDonough, J., Netting, F. E., & Nichols-Casebolt, A.(2001), "Subjugated Knowledge in Gender-Integrated Social Work Education: Call for a Dialogue", *Affilia*, 16(4), pp.411-431.
- Flexner, A.(2001), "Is Social Work a Profess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2), pp.152-165. Originally Published 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New York: Archer, 1915).
- Fujida, F., Diener, E., and Sandvik, E.(1991), "Gender differences in Negative Affect and Well-Being: The Case for Emotional Inten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pp.427-434.
- Galdas, P. M., Cheater, F., and Marshall, P.(2006), "Men and Health Help-seeking Behavior: Literature Review", 49(6), *Journal of Advanced Nursing*, pp.616-622.
- Gibbs, L., and Gambrell, E.(1996), *Critical Thinking for Social*

- Workers: A Workbook*, Thousands Oaks, CA: Pine Forge Pres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ham, H.(1992), "Feminism and Social Work Education", *Issues in Social Work Education*, 11(2), pp.48-64.
- Greenwood, E.(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pp.45-55.
- Grise-Owens, E.(2002), "Sexism and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Content Anlysis of Th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Affilia*, 17(2), pp.147-166.
- Hyde, C. A.(2003), "Gendered Perceptions of Community Needs and Concern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8(4), pp.45-65.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and Mckee, B.(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 Levinson, T. J. in Collaboration with Levinson, J. D.(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 Lubove, R.(1965), *The Professional Altruist: The Emergence of Social Work as a Career, 1880-193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uncy, R.(1991). *Creating a Female Dominion in American Reform, 1890-193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wman, B. M. and Newman, P. R.(1984),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2nd ed.), Homewood, IL: Dorsey

Press.

- Norman, J., and Wheeler, B.(1996), “Gender-Sensitive Social Work Practice: A Model for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2(2), pp.203-214.
- Pine, A. M. and Zaidman, N.(2003), “Gender, Culture, and Social Support: A Male-Ffemale, Israeli Jewish-Arab Comparison”, *Sex Roles*, 49(11/12), pp.571-586.
- Scourfield, J.(2006), Placing Gender in Social Work: The Local and National Dimensions of Gender Relations, *Social Work Education*, 25(7), pp.665-679
- Shriver, J. M.(2004),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4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Tice, K.(1990), “Gender and Social Work: Directions for the 1990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6(2), pp.134-144.
- Trotter, J., and Leech, N.(2003), “Link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Gender and Sexuality Issues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22(2), pp.203-214.

<Abstract>

Gender Issues in Social Work Educat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Sun-Young Park

Gender issue has been neglected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work education, although a great number of clients and service providers of social work practice are women and gender issues are intertwined with the problems of the clients including family relations and functioning, poverty,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Gender-free approaches in social work education may not be informative either for the career development or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clients with diverse backgrounds, furthermore such approaches may mislead social workers to gender discriminative prac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gender, contents of the textbook regarding the consideration and inclusiveness of gender issues, and alternative approaches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 integrative curriculum for social work education.